

긴급 경찰지휘부 회의 모두발언

- 안녕하십니까.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.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.
- 얼마 전 제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. 경찰서 실종사건 담당자가 가족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가, 2차 신고로 진실이 드러난 일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실종된 분은 결국 돌아가신 채로 발견되었습니다.
-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는 다른 시신도 발견되었고, 국민들은 이를 충격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.
- 광주에서 경찰 비리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경찰관들의 비위, 기강해이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매우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.
- 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, 경찰관들의 이러한 비위 행위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
-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. 경찰 지휘부와 함께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
- 어제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, 검찰개혁에 따라 이제 경찰은 이전보다 훨씬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.
- 정부의 권한은 국민의 동의에서부터 비롯됩니다.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아래의 경찰은 더 유능하고, 더 깨끗하고, 더 전문적인 경찰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. 이를 위해 국민 신뢰 회복은 필수적입니다.
- 오늘 이렇게 긴급히 지휘부 회의를 개최한 것도 이번 사건의 대책을 포함해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함입니다.

-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. 여기 계신 경찰 지휘부 여러분들이 이를 명심하고, 조직을 완전히 다시 세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.

□ 보고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휘부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당부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먼저, 대통령님과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, 이번 제주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.
- 사건의 동기와 경위, 그리고 혹시 여타 사건의 암장 등 더 큰 비위에 연관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.
- 그리고 해당 사건 담당자가 처리한 사건들에 대한 전수 점검은 물론, 전국 모든 경찰관서의 장기 실종사건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위나 부적절한 업무 행태가 있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.
- 두 번째로, 현행 경찰의 실종 업무체계가 적정하게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합니다.
- 이 사건은 담당자 개인의 일탈임과 동시에 실종 업무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것이기도 합니다.
-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도 중요하지만, 더 중요한 것은 업무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입니다. 현 실종 업무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마지막으로, 경찰 업무 영역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합니다.
- 경찰청 업무는 민생치안, 사회적 약자 보호, 교통 등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무가 무척 많은데, 이 중 이번 실종 사건처럼 개인의 일탈을 방지하지 못하는 등의 구조적 결함이 있는 사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- 여기 계신 지휘부 여러분들은 각자 맡은 업무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,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는 속도감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. 법적·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국회나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.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이와 함께, 오늘 회의에서는 불공정 수사 차단 대책, 부실수사 방지 대책 등 경찰 수사 개혁방안 전반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.

- 어제 대통령님이 총리께 경찰 개혁을 지시하셨고 여당에서도 경찰개혁추진단을 발족하였습니다. 행안부와 경찰청이 준비중인 경찰 수사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무리짓고, 대통령님과 국회에 보고해야 하겠습니다.
- 오는 10월 역사적인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앞두고, 조그마한 제도적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. 빈틈없는 제도 설계로 사건 암장이나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일은 발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.
- 이제 더 자세한 이야기는 경찰청 보고를 듣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